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4. 27 | IBKS Research

# Insight Monthly 5 2026



반도체	가전·전자부품	인터넷/게임/AI	화학/정유	유통·식자재	미디어
엔터	레저	유틸리티	통신	자동차	2차전지
건설/부동산	조선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4월	5월	6월	
IT/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전/전자부품				삼성전기, 아모텍
AI/인터넷/게임				카카오, NC
화학/정유				S-Oil, 롯데정밀화학
유통/식자재				GS피앤엘, 신세계
엔터				하이브, 디어유
미디어				스튜디오드래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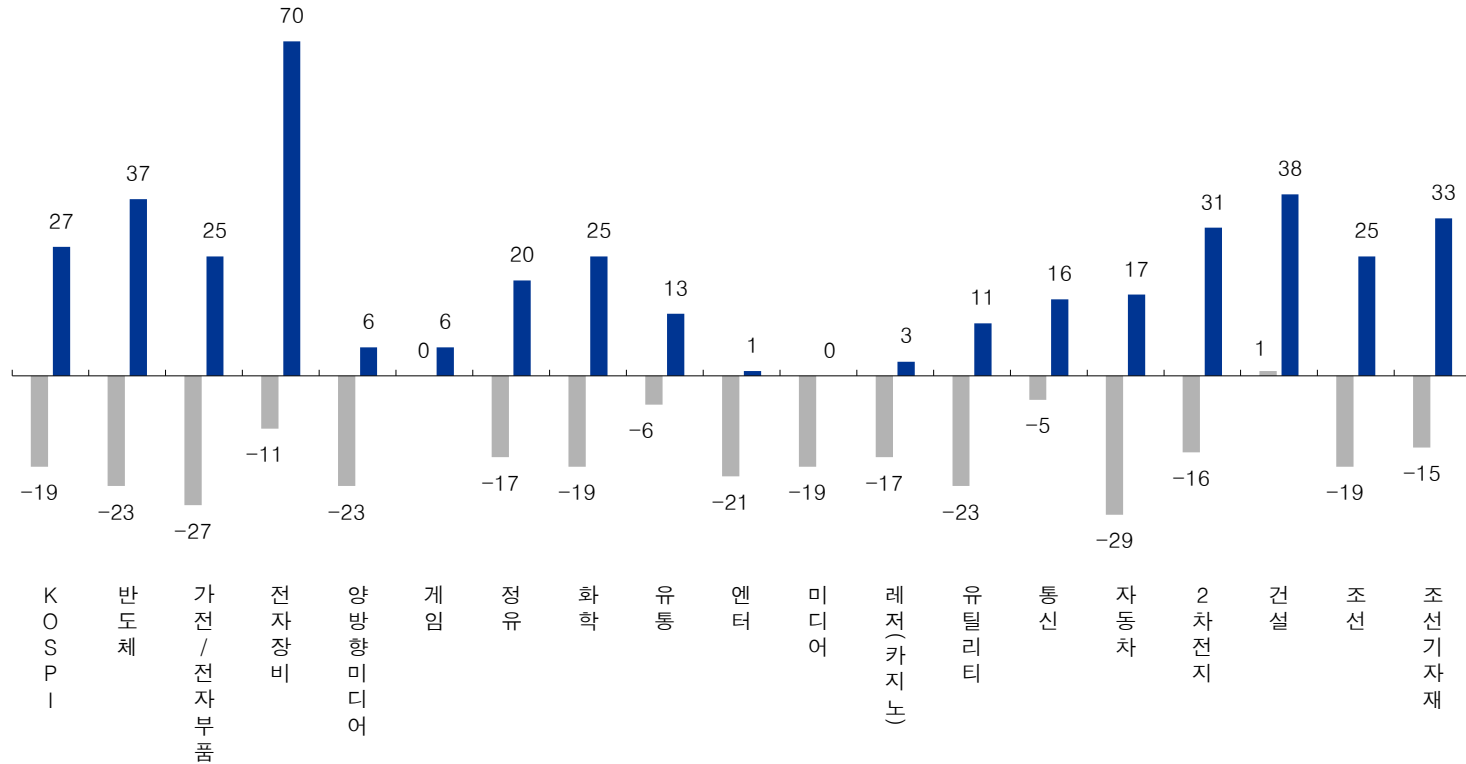
#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4월	5월	6월	
레저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유틸리티				효성중공업, 두산에너지빌리티
통신				SK텔레콤, KT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삼성SDI, 더블유씨피
건설/부동산				대우건설, GS건설
조선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 업종별 수익률

(%)

■ 3월 수익률 ■ 4월 수익률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COM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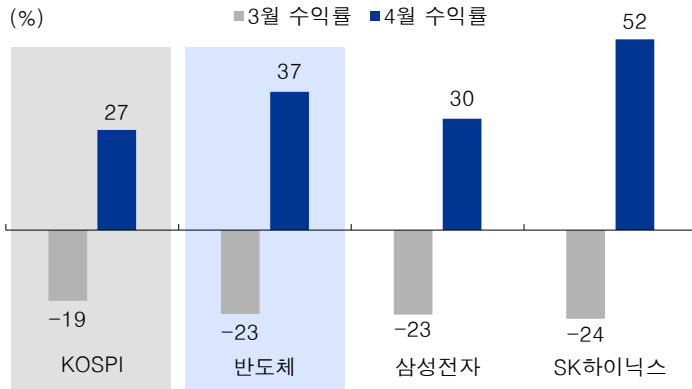


# IT/반도체

4월

## 성과 분석

- 4월 반도체 업종지수는 37.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율을 10.3%p 상회
- 삼성전자 26년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33조원(YoY +68.0%), 영업이익 57조원(YoY +755.0%)을 기록해 컨센서스 상회
-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규모 커질 것으로 전망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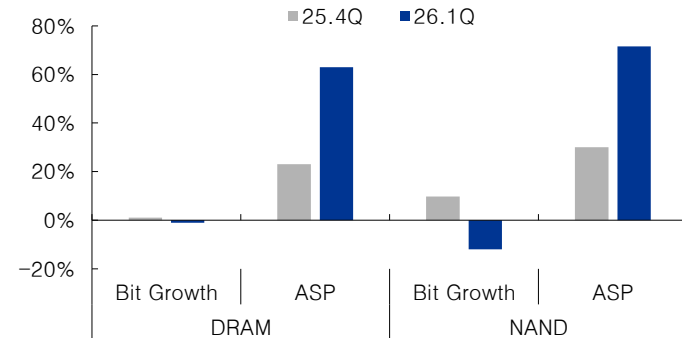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SK하이닉스 26년 1분기 실적 발표

- 매출액은 52.57조원, DRAM 40.5조원, NAND 11.7조원
- 영업이익 37.6조원. 영업이익률 71.5%
- DRAM Bit Growth -1.0%, ASP 63.0%
- NAND Bit Growth -12%, ASP 71.5%
- HBM 비중 20% 수준

### SK하이닉스 주요 Data



자료: SK하이닉스, IBK투자증권

# IT/반도체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메모리 업황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물량도 일부 개선될 것
- AI 서버 수요 확대로 Conventional DRAM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
- NAND 역시 수급은 빠듯한 상황 지속. ASP 상승세 지속될 것
- 메모리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일 것으로 기대
- 메모리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5월

## Top Picks

### 삼성전자

- 26년 1분기 잠정실적 매출액 132.9조원, 영업이익 57.3조원
- DS 사업부 영업이익 53조원으로 추정. DRAM, NAND ASP 업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
- 모바일은 원가 부담이 2분기로 이연될 것으로 전망. 상대적으로 1분기는 선전한 것으로 판단

###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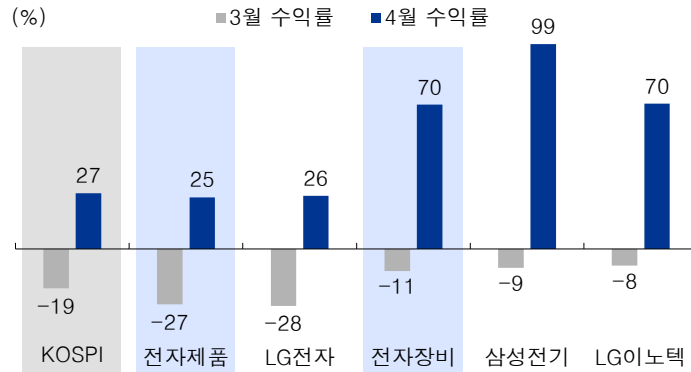
- 26년 1분기 매출액 52.57조원, 영업이익 37.6조원
- DRAM, NAND 모두 가격 주도 실적 개선
- DRAM 영업이익률은 77%, NAND 영업이익률은 55% 수준으로 추정
- 26년 2분기 매출액은 74조원, 영업이익 57조원으로 예상

# IT/가전/전자부품

4월

성과 분석

- 4월 전자제품 업종지수는 25.0%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0%p 하회
- 4월 전자장비 업종지수는 69.9%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42.9%p 상회
- MLCC Non IT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과 일부 FC-BGA 가격 인상으로 삼성전기 상승 지속. LG이노텍도 FC-BGA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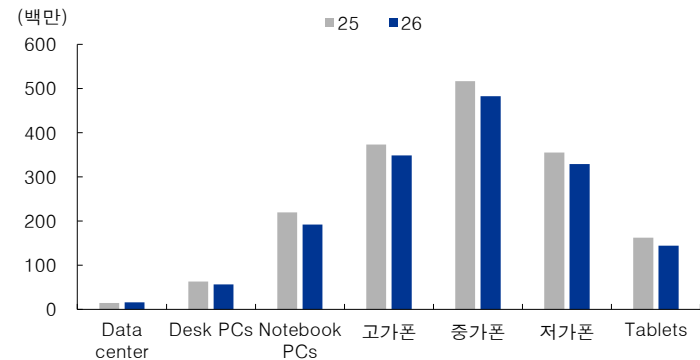
4월

주요 이슈 & 키워드

## 부품 시장 양극화 심화

- 모바일 관련 부품과 서버 관련 부품 업황은 극명한 차이
- AI 서버 관련 부품은 대부분 부품들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동반 중
- PC, 모바일 관련 부품은 물량 축소 분위기 확산

## 주요 Set별 출하 추이(25 vs 26)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 IT/가전/전자부품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전자부품 업황은 개선. 서버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 될 전망. 모바일 관련 부품은 부진할 것
- 가전 성수기. 2025년 진행된 구조조정 효과 본격화 될 것
- AI 서버 관련 기판 업체들 실적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
-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AI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이 원인
-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한 업체에 투자

5월

## Top Picks

### 삼성전기

- 2026년 연말까지 계단식 실적 개선 기대
- 기판 가격 인상 이후 생산 라인 확대 공격적으로 진행
- MLCC 가격 인상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 아모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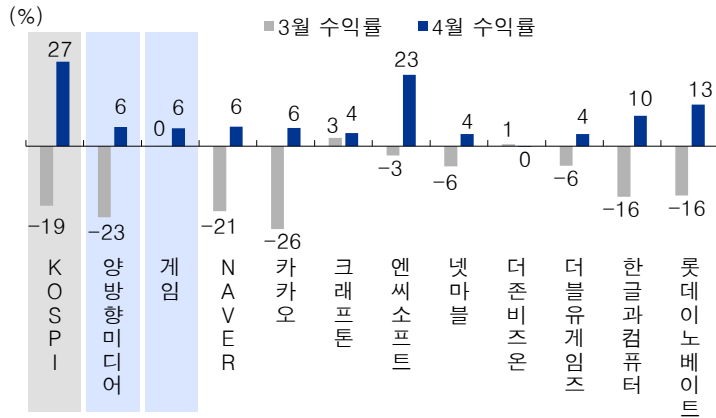
- MLCC 가 성장 동력
- 전장에서 AI로 사업 영역 확대
- AI 주력 제품은 광네트워크
- 광 스위치 칩을 생산하는 Marvell이 대표 고객
- 광트랜시버 메이커인 Coherent도 신규 고객
- 추후 Amphenol로 확장 계획
- GPU 관련 제품 개발 중
- 모터 부문 사업 확장(전장에서 ESS)

# AI/인터넷/게임

4월

성과 분석

- 4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6.1%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21.0%p 하회했고, 게임 지수는 +5.7%를 기록하여 코스피 대비 -21.3%p 하회함
- 양방향 미디어는 중동 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이 부상하며 경기 위축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업종 지수 상승함
- 게임 업종은 전월 지수를 상회했던 기저와, 대형 신작 모멘텀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함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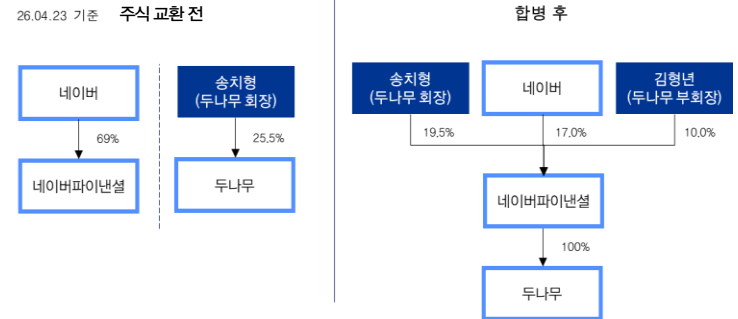
4월

주요 이슈 & 키워드

##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 교환 후 IPO 추진

-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 교환 이후 1년 이내에 IPO 위원회를 구성하며 신속히 네이버파이낸셜의 증시 상장을 추진할 것임을 공시
- 주식 교환 이후 5년 내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까지 상장 기간이 연기될 수 있음. 주식 교환이 올해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2033년이 최종 시한

##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 교환 전후 예상 지배구조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언론사, IBK투자증권

# AI/인터넷/게임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미국 빅테크 기업의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대함.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역시 견고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게임 업종은 4월 이란 전쟁 기간 상대적으로 견고했고, 신작 출시 부재로 인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만큼 시장 컨센서스 대비 성과에 따른 주가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 Top picks는 카카오와 NC를 유지함

5월

## Top Picks

### 카카오

- 1Q26 영업이익은 플랫폼 성장과 비용 통제에 힘입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임
- 특광고와 커머스 등 플랫폼 부문은 견조하게 성장 중이나, 신작 부재로 인한 게임 매출 급감과 웹툰 시장 정체에 따른 스토리 매출 감소가 예상됨
- 적자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와 AXZ(다음) 지분 매각을 통해 연결 실적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긍정적

### 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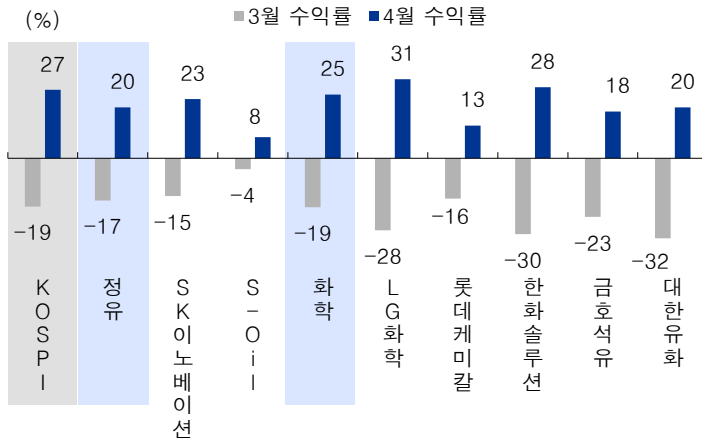
- 1분기 실적은 자사주 처분 비용 반영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 '리니지 클래식'이 출시 3주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아이온2' 역시 견조한 트래픽으로 실적을 견인함
- 리후후, 스프링컴즈, JustPlay 등 적극적인 인수를 통해 캐주얼 게임 장르로 진출함으로써 기존 대형 신작에만 의존하던 불안정한 수익 구조에서 탈피함

# 화학/정유

4월

## 성과 분석

- 4월 정유 업종지수는 +20.0%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7.0%p 하회. 유가 급등으로 재고관련이익 증가 전망 및 등/경유 크랙 증가에 기인
- 4월 화학 업종지수는 +25.1%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9%p 하회. 3월 긍정적인 레깅 효과 전망으로 범용 업체들의 실적 개선 전망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미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4달러 돌파

-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계 시장에 원유 공급 차질이 계속 되면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돌파
- 미국은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지 않지만, 중동의 석유 생산/저장 시설이 전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급등

### 황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제련사 수혜

-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국의 5월 황산 수출 중단 결정이 맞물리며 세계 황산 시장의 공급 불안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
- 다만 한국은 비철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을 회수해 황산을 생산하는 구조로 원가 부담 확대보다 판매단가 상승 효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화학/정유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가/가스/전력/해상운임/보험료 증가에 따른 자동차/건설/내구소비재/포장재 등 전방 수요처의 수요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가동률 축소 전망
- 5월 정유 업종은 등/경유 스프레드 급등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지속된다면 원유 조달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5월

## Top Picks

###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사한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중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 롯데정밀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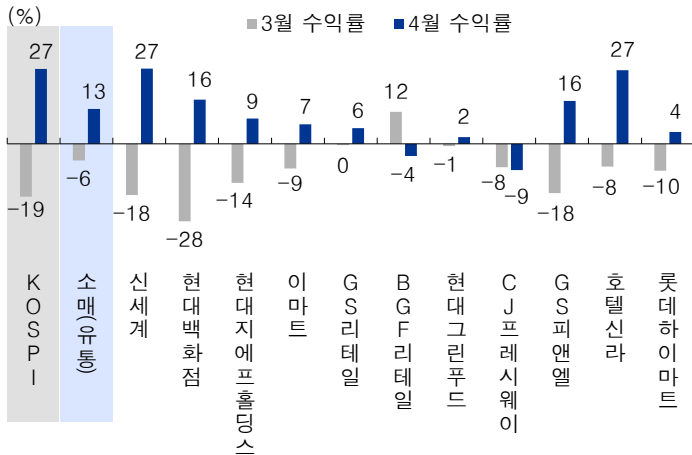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이슈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 가격 급등세 기록. 동사의 암모니아 사업의 평가 인상에 기여할 전망
-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유 상품/현금을 고려한 업종 내 차별적인 재무 안정성 지속 전망

# 유통 · 식자재

4월

성과 분석

- 4월 유통 업종 지수는 +12.7% 상승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14.4%P 하회
- 3월 하락장에서 코스피 대비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4월 상승장에서 코스피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 신세계는 1분기 의류 및 명품 판매 호조 등 성장 기대감으로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주요 이슈 & 키워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발표

- 4월 10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
- 여기에는 현금성 지원금 4.8조원이 포함되며, 소득 하위 70% 국민에 10~60만원을 지급. 취약계층은 4월 27일, 일반 국민들(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 예정
- 이번 지급은 비수도권, 취약계층으로 집중되어, 주요 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편의점만 소폭 수혜 예상

## 2월 방한 외국인 YoY +25.7% 증가

- 2026년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3.1만명으로, 전년동기 113.8만명 대비 +25.7% 증가
- 국가별로는 중국 50.5만명(YoY +48.0%, 비중 35.3%), 일본 23.3만명(YoY +3.7%, 비중 16.3%), 대만 18.4만명(YoY +53.1%, 비중 13.2%) 등
- 문체부에 따르면,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BTS 광화문 공연 등의 영향으로, 2월보다도 높은 성장률이 기대됨

# 유통 · 식자재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백화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명품, 주얼리 판매 증가 및 의류매출 회복세 뚜렷, 이에 따라 마진 믹스 개선 기대. 동 추세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대형마트: 지난해 기저효과 및 홈플러스 주요 점포 폐점에 따른 효과 2월부터 점진적으로 반영
- 편의점: 지난해 낮은 기저에 따른 1분기 기존점 성장률 회복 기조 유지 전망, 점포 폐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 2분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하반기 담배세 인상 이슈도 대두되며 외형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
- 호텔: 중-일 갈등 등으로 2월 중국인 관광객 YoY +48% 등 성장세 본격화, 3월 BTS 공연 효과도 기대

5월

## Top Picks

### GS피앤엘

- 2026년 1분기 매출액 1,396억원(YoY +47.7%), 영업이익 278억원(YoY +82.8%) 예상
- 1)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 2) 웨스틴 파르나스 수익성 회복, 3) 25년 1분기 나인트리 기저효과, 4) 제주도 내국인 입도객 회복에 따른 제주도 영업실적 확대 등
- 1분기 방한 외국인 수요는 구조적인 성장 구간. 방한 목적 외국인 성장률은 1월 YoY +20.2%, 2월 YoY +35.3%, 중-일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성장도 폭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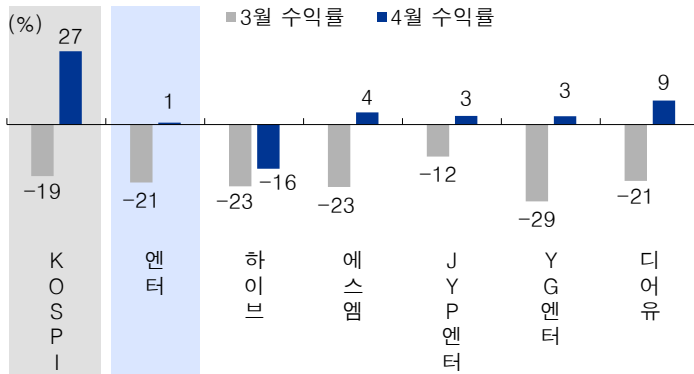
### 신세계

- 2026년 1분기 매출액 1.86조원(YoY +11.6%), 영업이익 1,794억원(YoY +35.6%), 강력한 분기 실적 전망
- 특히, 자산가치 상승과 본점 리뉴얼 확장에 따른 명품 성장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의류 매출 회복세도 지속
- 주요 종속회사(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센트럴)의 실적 성장 및 면세점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되며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 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4월

## 성과 분석

- 4월 엔터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0.6%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6.4%p 하회
- 4월 반도체 중심의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 큰 폭 조정, 에스엠, JYP, YG는 한자리 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부진
- 디어유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업종내 가장 높은 수익률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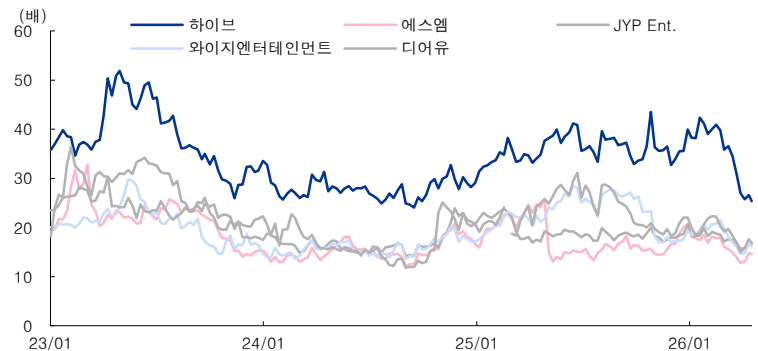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 당사 커버리지 주가는 최근 고점대비 30%~40% 하락
- 이번 조정은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BTS 컴백에 따른 피크아웃 우려가 함께 반영되며 투자심리 위축
- 현재 커버리지 12M Fwd P/E는 하이브 25배, 에스엠 14.6배, JYP, YG, 디어유 16.5배로 실적 역성장하던 24년 수준
- 그러나, 현재 엔터사 실적 추정치가 24년처럼 하향조정될 여지는 크지 않아, 최근 하락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 향후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되며 리레이팅 기대



자료: Spotify, IBK투자증권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엔터 업종 주가는 횡보 전망
- 엔터 업종 투자심리 악화로 2분기 실적 가시성이 확인되는 7월~8월까지 모멘텀 부재한 점이 주 요인
- 5월 코르티스(HYBE), 베이비몬스터(YG), 르세라핌(HYBE), aespa(SM) 등 컴백 예정. 코르티스는 데뷔 후 두번째 앨범 임에도 불구하고 선판매 190만장을 돌파해 초동 판매량 200만 상회 기대
- 최근 엔터주 12M Fwd P/E는 하이브 26배, 에스엠 14.6배, JYP, YG, 디어유 16.5배로 밴드 하단에 위치
- 향후 실적 또는 투자심리 개선 등의 모멘텀 발생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5월

## Top Picks

### 하이브

- 동사의 1Q26 실적은 매출액 6,376억원(+27.4% YoY, -10.9% QoQ, 영업이익 399억원(+84.5% YoY, +903.7% QoQ, OPM 6.3%)로 시장기대치(430억원) 하회 예상
-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BTS 컴백에 따른 앨범, MD 매출개선이 기대되나, 예상보다 높았던 BTS 컴백 관련 비용과, 세번째 재계약에 따른 정산율 상승이 있었던 점이 기대치 하회가 예상되는 주 요인

### 디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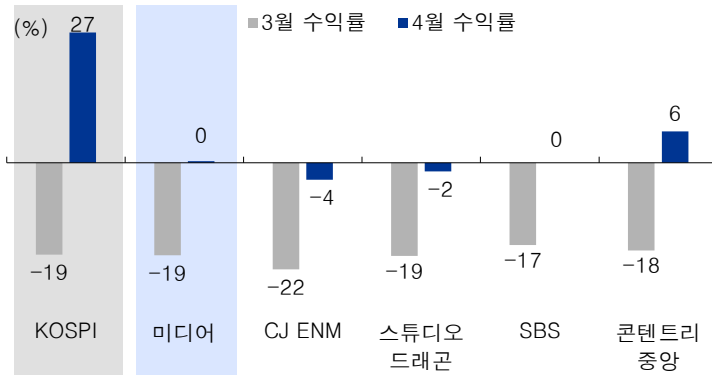
- 동사의 1Q26 영업이익은 99억원(+81.0% YoY, +1.7% QoQ, OPM 41.7%)으로 기대치(104억) 소폭 하회 예상
- 구독자는 전분기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1) 구독료 인상(25년 7월~), 2) 중국/일본 로열티 수익 확대, 3)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호한 실적 예상

# 미디어

4월

## 성과 분석

- 4월 미디어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0.3%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6.7%p 하회
- 스튜디오드래곤 -1.8%, CJ ENM -3.5%, SBS -0.0%, 콘텐츠리중앙 +6.5% 등 커버리지 종목 대부분 부진한 주가 수익률 시현
- 업종 전반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조정에 따른 수급 이탈 영향 지속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2026 북중미 월드컵, JTBC와 KBS 공동중계 확정

-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중계를 확정
- 양사의 중계권료 합의 가격은 약 140억원으로 추정
- JTBC는 2026~2032년 동, 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지만, 지상파 3사 대상 재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중계권료는 협상 초반 300억원대에서, 250억원, 140억원 규모로 낮춰 제시되어 왔음
-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JTBC 단독 중계
-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불발
- 월드컵이 JTBC, KBS 공동중계로 확정될 경우 SBS의 수익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미디어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미디어 업종 업황은 횡보 전망
- 최근 이란 전쟁으로 방송광고 업황이 더욱 악화되며 회복의 기미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
- CJ ENM과 SBS 모두 1Q26 방송광고 매출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스튜디오드래곤, 콘텐츠리중앙 등 제작사의 경우 수목드라마 추가 편성에 주목
- 다만, 현재 방송광고 업황을 고려하면 추가 편성이 쉽지 않을 전망
- 최선호주 스튜디오드래곤 유지

5월

## Top Picks

### 스튜디오드래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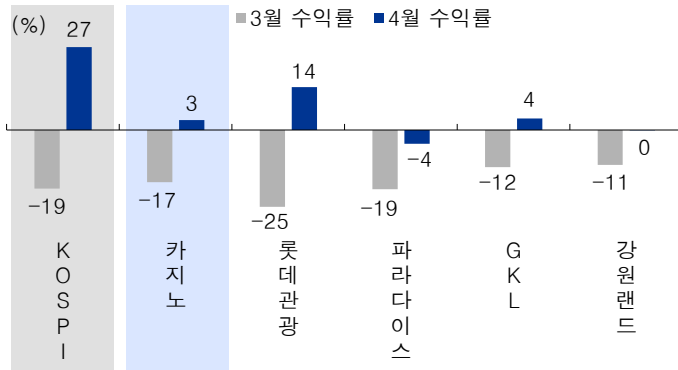
- 동사의 2026년 실적 매출액 6,626억원(+24.8% YoY), 영업이익 561억원(+84.8% YoY, OPM 8.5%) 전망
- 2026년 제작편수는 25편으로 지상파 편성, tvN 수목드라마 재개로 최소 전년대비 6편 이상 확대 예상, 글로벌 OTT 및 티빙 브랜드관 판매 증가로 수익성 개선 기대
- 올해 텐트폴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 3>, <천천히, 강렬하게>, <100일의 거짓말> 등, 미국에서 논의중인 다수의 프로젝트 중 약 3편이 시리즈오더 가시권으로 추정
- 추가로 중국과 문화교류 관련 협의가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일부 시장이 개방된다면, 구작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직수혜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 레저

4월

## 성과 분석

- 4월 카지노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3.3%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3.7%p 하회
- 롯데관광개발 +14.0%, 파라다이스 -4.5%, GKL +3.7%, 강원랜드 -0.1% 등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부진한 주가수익률을 기록
-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에 수급이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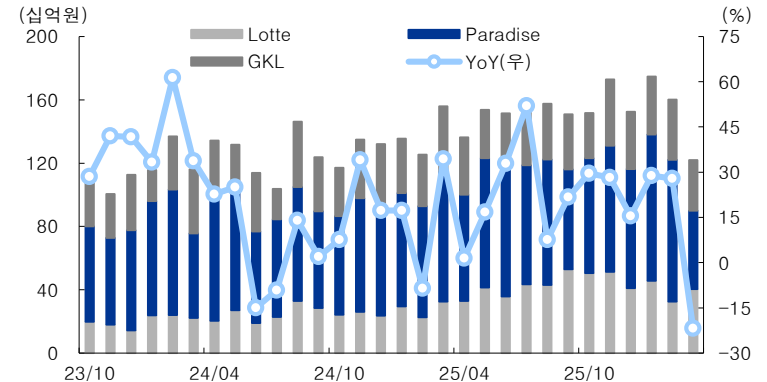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3월 카지노 3사 매출 1,219억원(-21.8% YoY)

- 3월 카지노 3사 합산 매출 1,219억원(-21.8% YoY, -23.9% MoM), 드랍액 1.11조원(+7.3% YoY, +15.2% MoM)
- 회사별 매출액은 롯데관광개발 404억원(+24.3% YoY), 파라다이스 495억원(-39.6% YoY), GKL 320억원(-22.8% YoY)
- 3월 카지노 3사 실적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달. 드랍액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홀드윙 하락으로 순매출이 큰 폭 감소했기 때문



자료: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IBK투자증권

# 레저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카지노 업황 전망은 긍정적
-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며 인바운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4월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추정치는 24만명(+24.0% YoY, +26.1% MoM)으로 뚜렷한 개선세 지속
- 5월초 발표되는 카지노 3사의 4월 지표는 중국 VIP 회복과 Mass 고객의 뚜렷한 성장에 힘입어 MoM 큰 폭 반등하며 주가 상승 견인 전망
- 업종 최선호주 롯데관광개발 유지

5월

## Top Picks

### 롯데관광개발

- 동사의 2026년 영업이익 2,112억원(+42.9% YoY) 전망. 1) 한일령 반사수혜, 2) 호텔객실 콤프 확대('25년 800객실 → '26년 1,000객실), 3) 테이블 가동률 상승('25년 130개 내외 → '26년 167개)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6년 하반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간 도래로 차입금 리파이낸싱 가능성이 있는 점도 긍정적

###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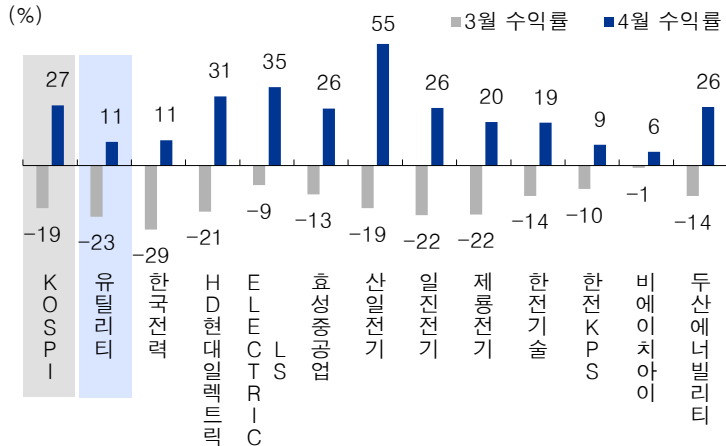
- 동사의 2026년 영업이익 2,160억원(+38.1% YoY, OPM 16.6%)으로 전망. 한일령 반사수혜와, 3월 인천 하얏트 오픈 효과에 따른 드랍액 성장(+12.5% YoY)이 실적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유틸리티

4월

## 성과 분석

- 4월 유틸리티 업종은 10.6%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6.4%p 하회
- 변압기 수출 호조로 산일전기(+55%), LS일렉트릭(+35%), HD현대일렉트릭(+31%) 등 전력기기 업체 강한 주가 흐름
- 또, 베트남 원전 수주 기대감 부각되며 두산에너지(+26%)와 한전기술(+19%) 등 원전 관련주도 견조한 상승세 기록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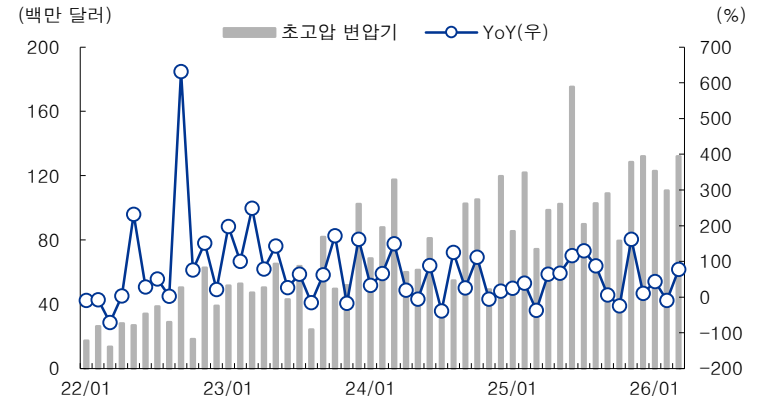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초고압변압기 수출 호조세 지속

- 국내 초고압변압기(10,000kVA 이상) 1분기 수출액이 3억 6,586만 달러(+29.9% YoY)로 확대된 가운데, LS일렉트릭의 1분기 초고압변압기 매출은 1,642억원(+83% YoY)으로 큰 폭 증가

### 월별 초고압변압기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 유틸리티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에도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함. LS일렉트릭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전력기기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신뢰도가 한 단계 높아진 상황. 이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등 주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와 수주잔고 확대에 기반한 실적 성장으로 상당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임. 글로벌 경쟁사인 GE Vernova도 최근 견조한 1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가이던스 상향조정에도 따라 신고가를 경신했음을 고려하면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높은 투자 심리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5월

## Top Picks

### 효성중공업

-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2,738억원(+18.4% YoY), 1,822억원(+78.0% YoY)으로 전망됨. 중공업과 건설 부문 모두 양호한 실적이 예상
- 미국 내 765kV 극초고압 전력망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초 이후 765kV 변압기 및 리액터 수주 규모는 약 0.9조원에 달하며 향후 매출 인식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진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두산에너지빌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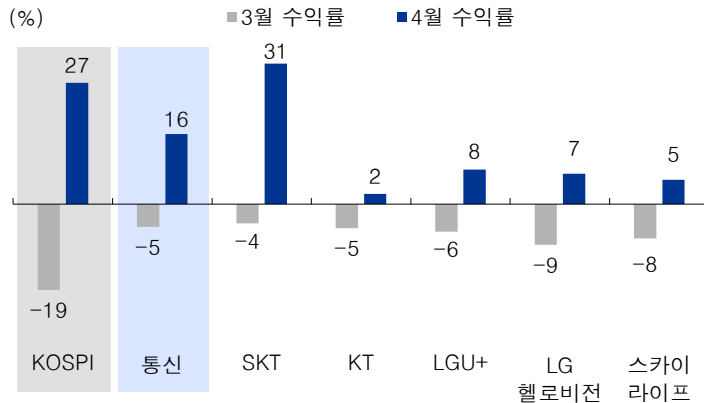
-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9,499억원(+5.4% YoY), 1,896억원(+33.1% YoY)으로 전망됨
- 실적 변동성을 키웠던 저수익 EPC프로젝트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원전 주기와 가스터빈, SMR 관련 기자재 등 고마진 사업의 매출 인식 비중 확대 긍정적
- 특히 원자력 수주 잔고가 작년 11.2조원(+90% YoY)으로 확대됐으며 2030년 27.2조원(26~30년 CAGR 20%)까지 확대될 전망

# 통신

4월

## 성과 분석

- 4월 통신 업종은 15.6% 상승했으나 코스피 수익률 대비로는 11.4%p 하회
- 엔트로픽 지분 가치(지분율: 0.3%, 지분가치: 약 1.4조원) 부각되며 SKT가 31%로 가장 크게 상승. LGU+는 경쟁사 해킹 이슈에 따른 가입자 증가로 1분기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에 8% 상승. 반면 KT는 전년 분양 수익 기저효과 등으로 단기 실적 기대감이 낮은 만큼 2% 상승에 그침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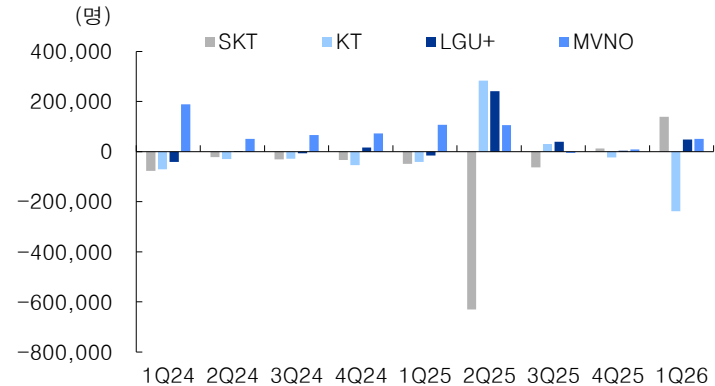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해킹 이슈로 KT 가입자 감소

- KT의 해킹 및 소액결제 피해 이슈에 따른 위약금 면제 (2025.12.31 ~2026.01.13) 결정으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분기 KT 이동전화 가입자가 23.8만명 순감. 반면, SKT와 LGU+는 각각 13.9만명, 4.8만명 순증

### 분기별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증감



자료: KOTA, IBK투자증권

# 통신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1분기 대비 2분기 통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될 여지가 높아 보임. SK텔레콤은 지난해 2분기 신규 영업정지 및 가입자 이탈에 따른 손실,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 비용 등이 반영됐으며, 3~4분기에는 요금 할인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이 반영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2분기부터는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
- KT도 지난해 4분기 해킹 및 소액결제 피해 대응 과정에서 전 가입자 유심칩 교체를 가정해 선반영했던 비용(약 1,000억원)과 고객 감사 패키지 관련 총당금(약 1,000억원) 일부에 대한 하반기 환입 가능성이 존재함. LG유플러스도 가입자 기반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년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일회성 비용(약 1,500억원)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이익 개선폭이 클 전망

5월

## Top Picks

### SK텔레콤

-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4,369억원(-0.4% YoY), 5,340억원(-5.9% YoY)으로 전망됨. 이동통신 가입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의 견조한 실적이 이를 일부 상쇄하며 낮아진 컨센서스(4조 4015억원/5,069억원)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분기부터 기저효과 구간 진입, 편안한 이익 회복 흐름 기대

###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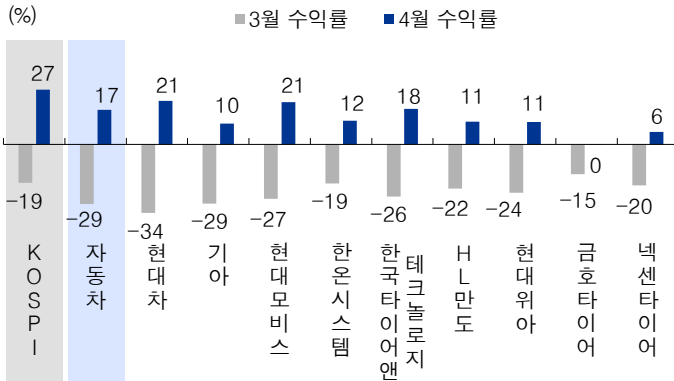
-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 7,322억원(-1.6% YoY), 4,982억원(-27.7% YoY)으로 전망됨. 판매비 및 지급 수수료 증가, 해킹 대응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 분양 수익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둔화가 예상되나 낮아진 컨센서스(6조 7,861억원/5,110억원)에는 대체로 부합할 듯
-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자동차

4월

## 성과 분석

- 4월 자동차 업종은 +17.0%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10.1%p 하회
- 25년 10월 간부치킨, 26년 1월 CES, 3월 GTC 등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뉴스플로우 지속 중
- 작년 12월, 1월에 이어 2월까지 주가적으로 좋았던 자동차 업종은 3월 이후 부진했으나, 모멘텀이 변한 것이 아닌 단순한 조정으로 판단하며 중장기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함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기아 2030년 연간 413만 대 판매목표 제시

- 기아는 4월 9일 CEO Investor Day에서 2030년까지 49조원을 투자하여 2030년 글로벌 판매량 413만대, 매출액 170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달성을 제시
- 차종별 판매 목표는 HEV 110만대, EV 100만대로 제시. 특히, 전기차의 경우 2026년 EV2를 시작으로 총 14종의 플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기아 CID(CEO Investor Day) 개최



자료: 기아, IBK투자증권

# 자동차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실적 하향 요인이었던 미국발 자동차 상호관세 이슈는 일단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관세 협상을 체결하며, EU, 일본, 한국 모두 15%로 동일해짐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1) AVP 본부 필두로 자체 내재화 개발과, 2)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활용 검토 등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 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는 각각 독립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변화이며 한국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 역시 경기민감 제조업에서 Physical AI의 초기 상용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5월

## Top Picks

### 현대차

-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연 3만대 규모로 양산하고, 구독형 (Raas)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Physical AI 산업 적용 본격화 전략을 발표
-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거점화 발표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GPU Blackwell 5만장의 활용 방안
- 웨이모와 아이오닉5 협업, Motional 등 2026년부터 본격화 될 로보택시 시장 기대감 유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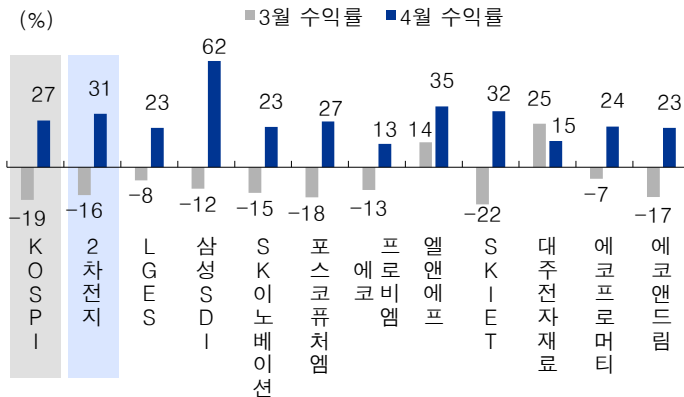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5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 (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 2차전지

4월

## 성과 분석

- 4월 2차전지 업종은 +30.9%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3.9%p 상회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
- 글로벌 시 인프라 확대에 따른 ESS 성장이 폭발적인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업황 개선 기대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25.5% 상승, CATL은 +20.8% 상승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23.8배, 27년 16.5배, 28년 13.8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6년 -25.9%, 27년 +54.4%, 28년 +59.1%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b>배터리 셀</b>						
LG에너지솔루션	320.7	63.6	35.2	23.8	16.5	13.8
삼성SDI	568.5	40.4	28.7	14.5	17.5	13.6
SK이노베이션	43.8	23.2	31.5	12.6	10.7	9.5
CATL	21.4	17.6	14.7	32.1	10.7	8.7
Panasonic	26.4	15.0	12.5	10.6	7.8	6.6
BYD	19.1	15.5	13.1	13.6	5.6	4.4
<b>양극재</b>						
포스코퓨처엠	561.6	205.2	110.9	75.3	53.6	41.6
에코프로비엠	646.2	244.6	139.7	70.8	53.4	49.3
엘앤에프	410.0	78.5	44.2	213.2	33.2	24.5
Umicore	11.8	10.5	9.2	5.9	5.8	5.3
Sumitomo Metal	19.3	14.7	13.9	12.6	16.2	18.1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4월 23일 기준

# 2차전지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2026년 LGES,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액 가이드는 YoY +15~20% 증가 제시, 양극재 기업들은 YoY +10~20% 증가를 제시함
- 23년 상반기 이후 이어온 부진한 배터리 업황은 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가 저점임을 확신
- 유럽 IAA(산업 가속화법) 초안이 3월 공개되었으며, 중국을 저격한 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손해가 전망됨으로 유럽 현지 또는 한국 생산 공장이 있는 소재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검색량 79% 증가, 3월 유럽 BEV 판매량은 YoY +41.7% 급등하며 관심이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음

5월

## Top Picks

### 삼성SDI

- 26년 1분기 매출액 3조 5,840억원(QoQ -7.1%), 영업이익 -2,120억원(적자지속),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전망
- 북미향 ESS의 경우 2028년 물량까지 전망 수주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60GWh(중국 7GWh, 한국 1GWh, 미국 49GWh, 폴란드 3GWh)
- 4월 20일,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기대

### 더블유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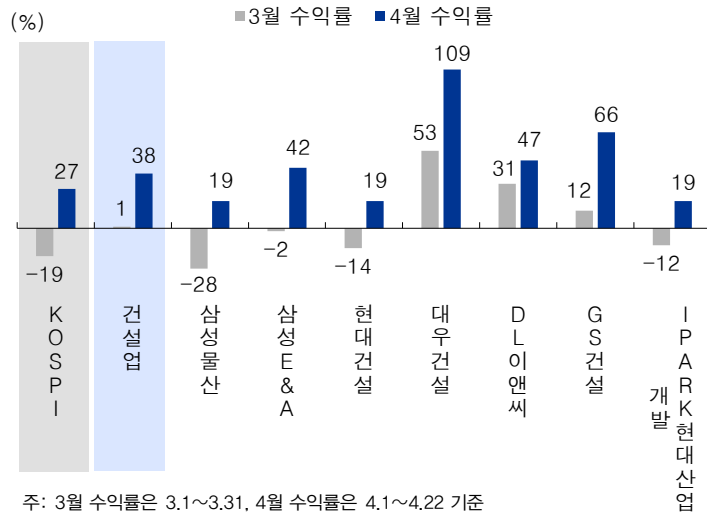
- 2026년 연간 판매량 가이드스 YoY +100% 이상을 제시하며 평균 가동률도 25년 40% 수준에서, 26년 60~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제시
- 북미 ESS향 중심으로 분리막 출하량이 증가하며, 올해 분리막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은 ESS 50%, EV 30%, 소형전지 20%로, ESS 위주의 높은 성장 기대

# 건설/부동산

4월

성과 분석

- 4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37.7%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10.6%p 상회. 종목별로는 대우건설이 +109.3%를 기록하며, 전 월(+53.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
- DL이앤씨는 +46.7%를 기록하였고, 이란 재건 및 SMR 중심 해외 사업 확장 기대가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주요 이슈 & 키워드

##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계약 연장

- 현대건설이 짓기로 한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프로젝트의 공사비 상승을 우려해 설계(ESC) 계약을 연장.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산정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
- 설계(ESC) 계약은 EPC 계약의 전(前) 단계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산출 작업 포함. 불가리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
-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가리아 측이 최종투자결정(FID) 시점을 여전히 2026년 하반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즉 현재 변화의 본질은 발주 의사 약화가 아니라, FID 이전 단계에서 원가 확정성과 비용 통제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에 가깝다고 판단

# 건설/부동산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5월 건설업 주가는 실적과 연동되어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점은 해외 저수익성 프로젝트 정리와 단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강도를 집중할 필요
- 또한, 건설업 주가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수주 가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 결국, 건설업 주가는 단기적으로 중동 재건 수요 +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나,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선 수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

5월

## Top Picks

### 대우건설

- 현재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원전. 당면 과제인 체코 원전은 당초 기대보다 계약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무리한 저마진 계약을 지양하고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
- 체코 외에도 베트남 원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팀코리아 형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므로 동사의 원전 파이프라인은 기대 대비 확장성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 GS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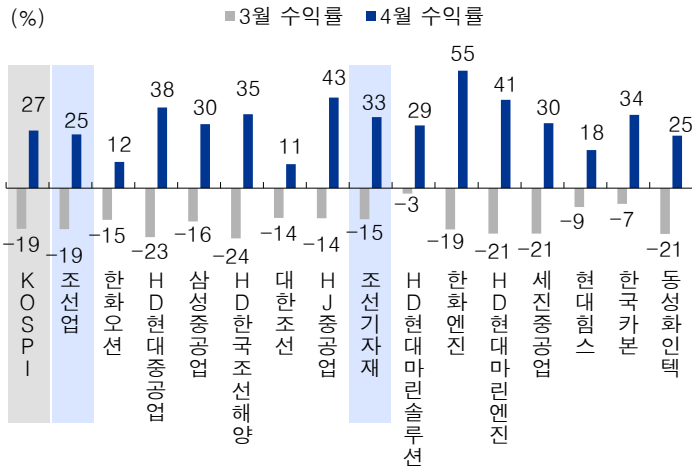
- 동사는 신월성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서 비주관사로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출형 연구로와 대형원전 개념설계 업무도 수행 중. 향후 팀코리아가 참여하는 해외 원전 입찰 프로젝트들에서도 동사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

# 조선

4월

## 성과 분석

- 4월 조선 업종은 +25.2% 상승, 코스피 수익률을 -1.8%p 하회함.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 해외 쇠빙 전용선 수주 및 美 데이터센터 향 엔진 공급 등 상선 이외 영역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으로 대형사 중 최고 상승률 기록
- 조선기자재 업종은 +33.3% 상승, 코스피 수익률을 +6.3%p 상회함



주: 3월 수익률은 3.1~3.31, 4월 수익률은 4.1~4.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4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데이터센터 향 엔진 수요 부각

- 4/16 핀란드 선박 엔진 업체 바르질라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총 412MW 전력 공급을 위한 가스엔진 40대 수주
- 과거 HD현대중공업은 남미, 중동 지역에 발전용 엔진 납품 이력이 있으며, 해당 엔진 공사건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음. 데이터센터 향 엔진 시장이 다시 새로 열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
- 데이터센터 향 엔진 모멘텀으로 주목하는 종목은 단연 HD현대중공업임. 한화엔진은 이제 막 4행정 엔진 시장에 진입,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수익성 아직 경쟁사 대비 낮음. STX엔진 역시 4행정 엔진을 제작하지만, 기타 2행정, 방산 향 엔진 수익성이 좋지 않음

# 조선

5월

## 전망 및 투자전략

4월



5월



6월



- **발주:** LNGc 발주 재개. 25년 신규 LNGc 발주는 32척으로 YoY -58% 감소. 미국의 중국 제재 리스크로 해운사들의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 그러나 11월 미중 무역합의 이후 LNGc 발주 재개 중. 26년에는 100척 수준의 발주 전망
- **모멘텀:** 미국 함정 건조 관련 논의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 협력, 투자 등 가시적인 진척 본격화 예상
- **실적:** 22년 수주 물량 완전히 해소, 23~24년 수주 물량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 신조선가지수는 23년초 162.2pt에서 24년 9월 189.9pt까지 17% 상승. 상선 부문에서도 여전히 실적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
- **투자전략:** 중형 조선사, 엔진 제조사 위주 비중확대 전략

5월

## Top Picks

### HJ중공업

- 실적: 4Q25 영업이익 QoQ 772.9% 증가. 24년 수주한 고선가 컨테이너선이 매출에 반영되며 신조선 부문 +14.9% OPM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26~27년 신조선 부문 매출, 수익성 동시 개선 지속 전망
- 모멘텀: 군산조선소 연결 편입 가능성 모멘텀. 대형사와 유사하게 미국 진출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 전략상선단, 군수지원함, 수송/상륙함 분야에서 협력 가능. 추가적으로 이르면 올해 UAE항 고속상륙정 수출 모멘텀 존재

### HD현대중공업

- 실적: 올해 해양 부문의 매출 증가하고, 상선 부문의 믹스 개선 지속 전망
- 모멘텀: 데이터센터 항 엔진 시장 개화. 최근 미국 에너지 개발 업체 AEG와 684MW, 6,271억원 규모 계약 체결, 헌팅턴잉 걸스와의 세컨 야드 JV 설립 모멘텀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4.01~2026.03.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9	92.7
Trading Buy (중립)	10	6.7
중립	1	0.7
매도	0	0



#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김유혁	연구위원	미디어/엔터/레저	6915-5673	yuhyuk.kim@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hoonoh@ibks.com

## 혁신기업분석부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유틸리티/통신	6915-5658	kith0923@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915-5464	ckjins@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 코스닥리서치센터

이건재	연구위원	소재·부품·장비/스몰캡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강민구	연구원	IT/디스플레이/미드·스몰캡	6915-5473	kmg@ibks.com

##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IBKS Family Office	02) 536-407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